



이탈리아 중부 수비아코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 전경

# 교회법 소개

교회는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로마의 법률 개념을 통해 생각했고, 교회의 고유 규율에 대해서조차도 로마의 법률과 행정 용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 한동일  
☞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마나 변호사



## I. 로마법의 초기 영향

교회는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상호 침투성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교회에 기술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한다면, 교회는 사회에 복음의 메시지와 이에 따른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며 인권과 박애주의의 토대를 마련합니다.<sup>1)</sup> 특히 이러한 현상은 법조 분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호 침투성은 그리스·로마의 정신이 그리스도교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로마의 법률 개념을 통해 생각했고, 교회의 고유 규율에 대해서조차도 로마의 법률과 행정 용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교회 저술가들은 이미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Religio licita) 이후 로마의 법률과 행정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문제에 대한 설명에 로마의 군사 용어까지 사용했지요. 가령 교회법 제1347조에서 사용하는 항명 ‘콘투마치아(contumacia)’라는 용어는 ‘군사상 명령 불복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로마법에서 군인 범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한편 수사학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웅변 교육을 받았는데, 시민법학에 대한 수용도 고려했지요.<sup>2)</sup> 그밖에도 로마의 영향은 교회법 규범들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케아 공의회(Concilium Nicaenum Primum(325)와 칼케돈 공의회(Concilium Calcedon Primum(451)의 각각 20개와 27개의 조항(canones) 및 4세기 말부터 제정된 교황들의 법령(Decretum)들입니다. 이들 교회법 규범들은 수집하여 편찬할 때 로마법의 이성 개념에 바탕을 두었으며, 로마법을 집대성한 이들의 체험과 학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6세기 초 「소소 디오니시오 법령집(Collectio Dionysiana)」은 기술적으로 <테오도시우스 법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수도자인 디오니시오는 그리스어 원문을 모두 라틴어로 번역했지요. <소 디오니시오 법령집>의 특징은 ‘사도들의 법’ 50개조와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칼케돈 공의회까지 총 열 번의 공의회 결정문을 수록했으며, 베르시오 프리샤(Versio Prisca)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조문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 II. 교회의 법률 문화에 살아 숨 쉬는 로마법

로마법의 전통은 로마 제국을 뒤이은 야만 정권에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법률 문화가 교회생활에도 계속 이어

1) Coram Turnaturi, *De Rotali iurisprudētia in causis iurium pro Studio Rotali II cursus coram Turnaturi*, Roma, 2004, p. 21.  
 2) Cf. P. Erdő, *Storia del diritto canonico - disciplina*,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op. cit., p. 1041.





시인 칼린 지브란의 고향이기도 한 레바논 레 체드레 전경. 마로니타 교회 신도들은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방어진에 유리한 이 협곡에 모여 살았다. 하지만 해안을 통해 교역을 할 수 없었기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런 가난을 어떻게 이기며 그 긴 세월을 보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들은 “땅에서 주는 것을 먹으며 버텼다”고 대답하였다.

져 내려왔던 스페인 서西哥트족을 통해 존속했습니다. 세비아의 이시도로 Isidoro(560~636)의 「어원론 Etimologie」은 중세 교회 법률 사상의 기초를 다진 작품입니다. 법학은 「어원론 Etimologie」 제5권에서 다루어집니다. 총 39개장으로 구성되는데, 법률의 기술가, 신법과 인정법, 법·법률·관습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연법, 시민법, 국제법, 군사법, 공법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합니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고대 후기 ‘스콜라 학파’의 입문서 manuale와 가이우스의 「법학원론 Institutiones」에서 직간접적으로 취한 로마의 법률 개념을 전해줍니다. ‘스콜라 학파’는 신학, 철학, 법학을 포함해서 중세 유럽에 성립한 학문 형태의 총체였습니다. ‘스콜라 schola’라는 말은 라틴어로 ‘학교’라는 뜻입니다. 5~7세기에 걸쳐 유럽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문화적 공백기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북방 민족 蠻族들의 교화 사업이 그리스도교에 맡겨졌습니다. 9세기 프랑크족의 샤를마뉴 대제는 서방을 통일하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제왕의 관을 받았습니다. 그는 광대한 로마 제국을 문화적으로 재건하는 데 가톨릭의 큰 협력을 받았지요. 그래

서 그는 궁중이나 수도원, 주교좌 성당의 소속 학교를 세우고 교사 자리에는 모두 성직자를 초빙했습니다. 이때 궁중 학교는 문과 양성을, 다른 학교에서는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학교들을 ‘스콜라 Schola’라 했고, 여기서 가르치는 학문을 스콜라학 또는 스콜라 철학이라 했습니다. 이 스콜라에서는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며 아울러 교회의 신앙을 더욱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스콜라 철학은 신앙의 근거와 동기를 입증하는 데에 큰 몫을 했습니다. 13세기는 스콜라 철학의 융성기였는데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스콜라 철학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학대전 神學大全」은 이 학문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발전시킨 좋은 예시지요. 이러한 영향으로 이시도로도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법은 인간의 행동에 관해 다루기 때문에 윤리학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어원론은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교육 책자는 중세 초기 성직자 양성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세 교육의 요람은 이탈리아 중부 수비아코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였습니다. 볼로냐에서 대



레 체드레 협곡에 위치한 동방 가톨릭교회 마로니타 소속 수도회

학 교육이 태동하기 전까지 베네딕토 수도회를 통해 중세의 모든 교육이 형성,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인 베네딕토 성인을 ‘유럽의 정신’ 또는 ‘유럽의 수호성인’이라고 부르지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통은 유럽, 미국과 캐나다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수도원 전통은 성 대가 바실리오, 테오도로 스투디타 Teodoro Studita, 파코미오 Pachomius, 아타나시오 안토니타 Atanasio Antonita와 그 밖의 다른 성인들에 의해서 승인된 동방의 수도 전통에 일치하고, 적합한 현행 규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경스러운 전통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훌륭하게 확인되고 증진되며 보존됩니다. 그중에서 레바논의 레 체드레 Le Cedre는 오늘날에도 그 역사적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서방의 베네딕토 수도회는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동방에는 특히 수도생활이 특별하게 드러내는 그런 풍요로운 영성 전통이 있다. 거기서는 실제로 거룩한 교부들의 빛나는 시대부터 그런 수도 영성이 꽃피었고, 뒤에 그 영성이 서방으로 흘러들어 이

를 원천으로 삼아 라틴계 수도회가 생겨났으며, 그다음에도 동방에서 거듭 새로운 힘을 받아 왔다”고 선언합니다(『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15항). 위의 사진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sup>3)</sup>

중세 초기에는 로마법의 범주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앞선 시대에 발전했던 교회법 개념들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야만 민족이 보유한 전통의 영향 때문에 교회의 고유법 규범의 권위와 존재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도 사라져갔고요. 한편 연대기 순의 교회법 모음집에서 법률적 성격의 조항들이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특히 공의회 규정과 교황의 법령들이 수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용성을 위해 주제별로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주제별 분류 성격의 모음집들은 로마법 기준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많은 저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규범 구절들 및 이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던 구약성경의 많은 계명 등과 같이 ‘출처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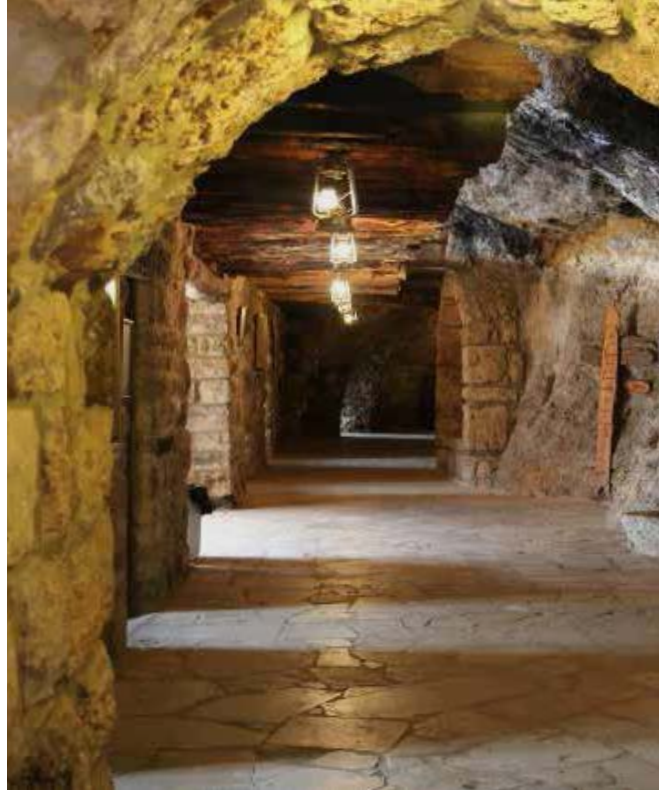
3) Cf. D. Salachas, *Diritto orientale (Ius Ecclesiarum orientalium)*,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p. 412.



른 수많은 문헌'을 끌어 모으는 데만 의의를 두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교회법전집Collectio Hibernensis>(약 700년)과 수많은 '참회서Libri Poenitentiales'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죄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 참회서는 개별고백과 고해성사의 엄격한 보속규정들을 나열합니다. 대부분 인간의 죄를 강조하였기에 신 앞에 근심하는 인간의 자화상이 그려졌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연구를 통해 교회생활의 규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야만족들(특히 켈트민족들)의 언어문화에 일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일련의 질문이 다수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 당시 참회 규정들의 불확실성과 권위의 결여, 교리적 오류로 인해 교회 권위에 의해 수많은 속죄 규정들이 배제되고 단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돌로 인해 교회법에 대한 인식은 로마 유산의 인식과 연결되었습니다.<sup>4)</sup>

사도 시대 이후 주교를 보필하던 성직자들은 사제단 presbyterium을 이루어 각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직자가 독신생활을 더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자 동방 교회에서 시작하였던 공동생활을 도입했고, 이는 서방 전역에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공동생활은 규율canon에 따라 수도승처럼 살아야 하는 규율생활 vita canonica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는 성직자를 '규율자canonicus'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 9세기 프랑크 왕국의 샤를 대제는 성직자들이 규율자 혹은 수도승처럼 살도록 규정했지요. 규율자들은 매일 모여서 규율의 한 장capitulum씩을 봉독하고 생활에 실천하고자 했습니다.<sup>5)</sup>

로마 제국 멸망 시기부터 11세기까지 법학 전문학교가 존재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더라도, 법률 교육은 교양과목artes liberales의 하나인 수사학 과목으로 학교에서 자리잡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sup>6)</sup> 이는 여러 수사학 저술에서 발견되는 교회법 교과서에 대한 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수도원과 주교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교회법 과목은 주요 법령집들, 특히 「디오니시오 아드리아나 법령집Collectio Dionysio Hadriana」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디오니시오의 법령집>은 공의회 결정문 모음집인 '리베르 카노눔 Liber canonum'과 교황들의 칙령 모음집인 '리베르 데크레토



수도원 내부

룸Liber Decretorum'의 합본으로 '코텍스 카노눔Codex canonum' 또는 '코르푸스 카노눔Corpus canonum'이라고 부르다가 최종적으로 '디오니시오 법령집Collectio Dionysiana'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아드리아노 1세가 774년 샤를 대제에게 보내면서 '디오니시오 아드리아나 법령집Collectio Dionysiana Hadriana'이라는 공식적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법령집은 당대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9세기 초 프랑스에서 이 법령집에 대한 최초의 교회법 주석서glosse가 집필되었습니다.<sup>7)</sup> 이 주석서는 같은 책의

4) Cf. P. Erdö, *Storia del diritto canonico - disciplina*,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op. cit., p. 1042.

5) 정진석, 「교회법전 주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534쪽 참조.

6) 대수도원과 주교들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4과quadrivium' 또는 '3과trivium' 교양과목artes liberales으로 백과사전 성격의 교육을 이어나갔다. 4과 교양과목은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이며, 세 가지 교양과목은 문법, 변증법, 수사학이다. 법학은 3과 교양과목 가운데 한 과목으로 자리잡는다.

7) Cf. P. Erdö, *Storia del diritto canonico - disciplina*,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op. cit., p. 1042.

8) 고명식, 앞의 책, 57쪽 참조.

본문에 첨부된 간략한 주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당대의 정치, 문화생활의 중심인물들은 자신들의 저작에서 교회법의 문제들을 숙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봉건 영주가 교회 재산을 강탈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교회직무에 서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랭스의 잉크마르 Incmaro di Reims는 교회법 본문에 대한 주석 규칙들을 완성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주석서를 시작으로 12세기에 들어서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해석을 위주로 하는 주석학과 Glossatoren가 탄생하게 됩니다.<sup>8)</sup>

황제들이 주도하고 이후 로마 교황이 전개한 그레고리오 개혁은 10~11세기 개혁의 지성적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법 법령집들을 위한 체계와 방법 외에도 ‘일치 Concordanza’, 즉 서로 다른 교회법 규범의 모순을 해결하는 여러 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규정들은 특히 그레고리오 개혁과 연관된 실제적, 이론적 논쟁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 1073~1085는 개혁을 통해 성직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서임권을 확보하며 무허가 서품에 제재를 가했으며, 또한 교회법제를 정비하고 법률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법령집의 진위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우수한 교회법학자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sup>9)</sup> 교회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2세기 초부터 서방에서, 구체적으로 오를레앙 대학에서 실현된 변증법의 발전은 법조문 주석에 상응하는 모든 이론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회법에 대해 주석 원칙을 적용했던 피에트로 아벨라르도 Pietro Abelardo(1142년 사망) 외에도 알제로 디 리에지 Algero di Liegi(1132년 사망)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제로 디 리에지는 자신의 <자비론과 정의론 De Misericordia et iustitia>에서 모든 교회법 법령집에 ‘일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후대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라시아노의 선례가 되므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지요.<sup>10)</sup>

9) 이경상, 앞의 책, 109쪽 참조.

10) Cf. P. Erdő, *Storia del diritto canonico - disciplina*,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op. cit., pp. 1042~1043.



과거 은수자들이 살았던 방, 방에는 의자와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레 체드레 삼백나무 보존 지역, 이곳의 삼백나무로 솔로몬은 자신의 예루살렘을 지었다.